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빛과 세상 I

(요 1:10-13)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이 육신만 가지고 인간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영혼만 가지고도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과 육이 합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박대한 것은 대단히 우매한 것이요 인간이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1.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1) 계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요 1:10).

‘계셨다’는 말이 성육신 전에 영으로 세상에 계신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요한의 증언 당시 그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서는 요한이 세상에 빛이 들어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요한의 증거 당시 육신으로 온 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2) 세상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창조된 넓은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불신하는 세계, 곧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 곧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와 죄성을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된 인간 속에, 불신의 인간 속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린 언제든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옆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2.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1:10).

(1)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존재 자체가 말씀을 힘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선재설을 의미합니다. 2천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계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2-3).

①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한 이유

첫째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성이 폭로될까 봐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빛이 오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자꾸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둘째로,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빛이 비쳐도 소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적 소경인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②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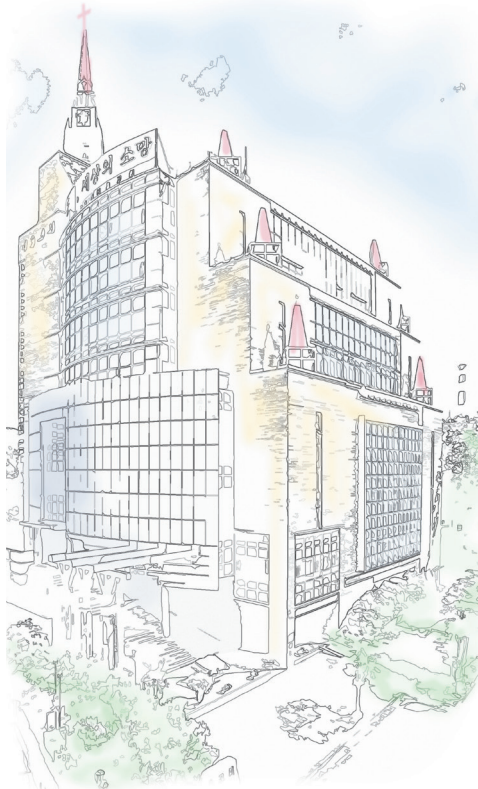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 1:11) 낮은 곳에 가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르는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첫째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한 것처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픈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수고와 고통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둘째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멀리 간 다음에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주인의 하인이 오는 것을 모조리 죽여 버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비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총회재판국,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 목사 권징관련 기소명령 내리다

강남노회 기소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기소명령 또 불이행 할 경우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

지난 7월 16일 총회재판국에서는 2018년 3월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집사, 권사 36명이 제출한 박노철 목사 권징관련 재항고건을 심리한 후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명령하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시환 집사 등 서울교회 집사, 권사들이 박노철 목사가 거짓 분실 사유를 들어 교회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행위, 총회재판국의 위임목사 지위 상실 판결 이후 고유번호증의 교회대표자 명의가 이종윤 목사로 변경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오래전 임기가 끝난 총회장 명의로 발행되었던 서류를 가지고 다시 자기 명의로 교회 대표자를 변경한 행위, 불법용역을 고용하고 폭력을 동원하여 교회건물을 점거한 행위, 법원과 총회재판국 지시까지 무시하고 불법으로 선출된 15인을 장로로 임지한 행위 등에 관하여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에 박노철 목사를 기소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다.

이 기소명령에도 불구하고 노회 기소위원회가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기소명령을 하게 되고 또 불이행 할 경우에는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목회자로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여러 불법을 자행하고 현재도 그 불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는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판결과 상관없이 교단법상의 권징책벌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결 정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37호

사건명 :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집사 권사 36인이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

재항고인(고소인) : 1. 김시환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피재항고인 :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

피고소인 : 성명 : 박노철 성별 : 남 직분 : 목사(서울교회)

결정거의일 : 2019년 7월 16일

주 문

1. 피고소인 박노철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9항, 제12항, 제13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한다.

이 유

1. 고소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재항고인이 기소여부 등에 관한 통지를 알았으므로,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 재판국은 첨부된 재판 서류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재항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2. 살펴건대, 당 재판국은 이 사건에 관한 심리를 개시한 후 피재항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을 불기소처리 하지 않겠다고 심사숙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존중하여 2018년 7월 2일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기소여부에 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그러나 2019년 5월 16일 접수된 고소인 측의 재판개시요청 시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진행

된 조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기소위원회 및 재판국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피재항고인에게 헌법 권징 규정상의 기간과 절차에 따른 기소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판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와 경중을 고려하면 마땅히 고소인 측의 재판개시 요청을 받아들여 미루지 않고 재판하여야 할 것이나, 피재항고인의 입장을 제차 고려하여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2항, 제4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주된 제1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기소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62조 제1항
헌법 권징 제64조 제2항, 제4항
헌법 권징 제65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9. 7. 16.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청년·2부 8월 15일(목)~17일(토) 아가페타운 에바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롭게 마무리 중이다.
지난 7월 25일(목)~27일(토), 아가페타운에서 유년·초등부 수련회가 'I am a Christian (신 6:18-19)' 주제로 열렸으며 중·고등부의 여름수련회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 23:3)"라는 주제로 열렸다.

많은 비와 더운 날씨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 교역자, 교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 1·2부와 에바다부 수련회가 8월 15일(목)에 아가페타운과 서울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마지막까지 사고없이 은혜중에 2019 여름수련회가 마무리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청년1부	8월 15일(목)~17일(토)	아가페타운	순직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 (시 121:1-2)	서명철 목사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동식·유하영 김정애 서상근·김예환 박광훈 무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7월·8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7월 28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8월 4일: 김봉배(통증의학), 박동우(영상의학)
 - 8월 11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8월 18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8월 25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일시: 9. 29(주)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일시: 10. 12(토) 오후 1시






 Bus Metro Walking
B.M.W. 운동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농어촌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서울교회를 통해 대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교회라 불러 주시는 대진중앙교회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대진중앙교회로 전도대원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년 5명과 교회학교 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크신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 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섬겨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신 것에 비해 작은 결실일 수 있지만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으로 더 노력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깨달으며 이 대진 땅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찾으며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섬겨 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대진 땅에 복음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목회사역 중 대진중앙교회에서 서울교회를 만난 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농어촌전도대를 대진중앙교회로 보내 주신 서울교회와 당회, 지도목사님인 서명철 목사님, 대장이신 최광성 장로님, 실무를 담당하신 홍창훈 집사님, 의료선교팀, 만나팀, 이·미용팀, 축조전도팀, 지원팀, 성경학교팀, 바쁜신 가운데 방문하여 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과 후원으로 함께 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다섯 번을 대진중앙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대진중앙교회와 마을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 한 사역이 전무하였고 성도들 또한 평안을 누리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설립 후 전임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에서 이름 없이 작은 교회로 불리며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의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대진중앙교회와 서울교회가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고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중앙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교회에 오르는데 있어 힘든 모든 것도 잘 견뎌내며 주님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진중앙교회 목사 김춘기 올림

사진 : 최형열 장로 안선광 집사





정병무 은퇴장로 (12교구)

지난 6월은 현충일과 더불어 호국의 달이요, 7월은 제헌절이 있는 호헌의 달이며 다음 8월은 광복절을 기리는 주권회복의 달입니다.

우리 태극기는 이 나라의 상징이요 애국심의 근원이 되며 자유대한민국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고 6.25사변을 몸소 체험한 세대는 태극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만, 전후세대는 국가관이 너무나 나약한 것 같고 나라사랑 의식에 허기를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우리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태극기를 구심점으로 삼아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호국영령들은 태극기로 옷 입고 나라 위에 산화(散花)하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현실에 도취(陶醉)되어 나라사랑의 정서에서 자못 멀어져 있음을 씁니다. 적어도 국경일만이라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선열들의 높은 뜻을 되새기고 나라사랑을 다짐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리에서 국기를 생산원가(시가의 절반이하)로 많이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로부터 작은 표창을 받게 되었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며 그 초보는 태극기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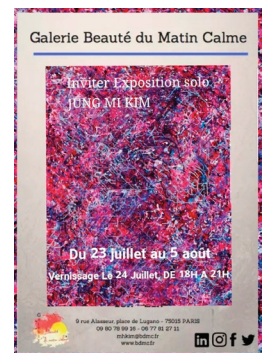


▶ 지난 7월 17일(수) 용인시 '시정발전 유공시민'으로 표창 받은 정병무 은퇴장로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 3(토) 사랑의 쌀 운동과 몽골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개인전 : 13교구 김정미 권사 초대 개인전 7.23-8.5 파리 15구 스위스 빌리지 BDMC 갤러리



■ 사임 : 주일 1부예배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7월 21일자로 사임하였다.

■ 금주의 식사 : 무명 성도 제공 (범사에 감사하며) 도토리묵시발, 과일샐러드

주일 1부예배 오르가니스트 임명

교회는 1부예배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7월 21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이수정 선생을 주일 1부예배 오르가니스트로 임명하였다. 이수정 선생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이수정 선생

- 이수정 선생 (1984년 생)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Konzert Meisterklassen 졸업 (오르간 전공)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Master of Musik 졸업 (오르간 전공)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오르간 전공)
- 중현교회 오르가니스트 (수요 1부)
- 연세대학교교회 부오르가니스트
- 플레기움 보칼레 서울 반주자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9일	월	사 18-22		신 1-7	
7월30일	화	사 23-27		신 8-14	
7월31일	수	사 28-32		신 15-22	
8월1일	목	사 33-36		신 23-29	
8월2일	금	사 37-40		신 30-34	
8월3일	토	사 41-43		수 1-8	
8월4일	주일	사 44-47		수 9-14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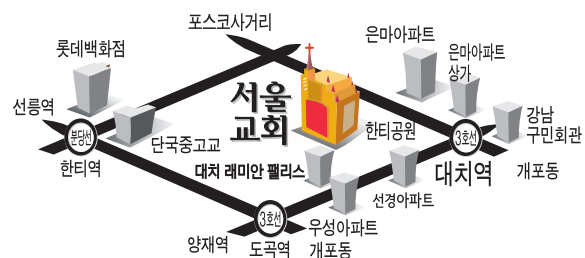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힘써 기도하며 응답 받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